

「서옥기」의 작가의식 연구

장 시 광*

1. 서론

송사형 우화소설 「鼠獄記」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태준의 간략한 언급¹⁾으로부터 시작된 「서옥기」 연구는 정학성에 의해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²⁾ 정학성은 「서옥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했는데 그 중심적인 내용은 작품으로부터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옥기」를 환납제의 모순과 폐해를 다룬 소설이라고 주장하였다.³⁾ 정학성의 이러한 연구 방법과 견해는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연구 방법과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⁴⁾ 그의 견해 중 쥐는 탐관오리를 상징, 풍자한 것이라는 시각만을 따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⁵⁾

정학성이 작품을 사회적인 시각으로 본 것은 대부분의 우화소설 연구자들이 또한 견지한 것⁶⁾으로서, 「서옥기」를 거론한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시

* 박사과정 수료

1)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 정학성, 「우화소설 서옥기의 소설사적 가치」,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출판사, 1981.

3) 정학성, 앞의 논문, 235면.

4) 신영주, 「쥐를 의인화한 우화소설 연구」, 상명여대 석사논문, 1986; 주영효, 「鼠類寓話小說研究」,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5.

5) 김재환, 「한국동물우화소설의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88.

6)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정출현,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논문, 1992; 민찬, 『조선후기 우화소설연구』, 태학사, 1995.

각을 따른 경우가 많았다. 김충실과 정규훈은 정학성이 도출한 주제와는 거리가 있는 주제를 제시하였지만 작품을 사회적으로 본 데에는 차이가 없었다.⁷⁾

한편,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서옥기」를 바라본 연구자도 있다. 이현홍은 우리 고전소설의 대다수가 중세적 이데올로기의 구현이라는 교훈적 효용 아래 향유된 것들임에 반해 「서옥기」와 「와사옥안」은 비판이나 흥미 그 자체의 목적으로 읽혀지고 있다 하고, 이를 작품은 行刑 업무에 밝은 실무자가 자신들의 업무에 얹힌 사연의 한 단면을 회화적으로 그려본 것이라 하였다.⁸⁾ 김재환은 「서옥기」가 자기의 죄상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는 비굴한 행동을 풍자한 작품이라 하였다.⁹⁾ 김재환은 쥐는 국고를 탕진하는 탐관오리라 하여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작품의 주제는 위와 같이 보편적인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한편, 필자는 「서옥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제적 연구에 치우쳤다는 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선행 작업으로서 창작방식에 대한 고찰을 한 바 있다.¹⁰⁾ 창작방식을 크게 전고, 대립, 반복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 연구로부터 일정하게 내용 고찰에까지 연결시켰다. 그 결과에 의하면 「서옥기」에는 크게 네 가지의 상징화된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기득권층, 사회불만층 또는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층, 중간계층, 천민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서옥기」에서 전고의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립적인 구도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는 데서 추출한 결과이다.

7) 김충실은 「서옥기」가 도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상황과 사회적 지배계층의 비행과 부조리의 제시, 판관의 무능함과 고문의 위협을 통한 자백 강요, 편파적 판결에 대한 항의 등을 드러내고 있다 하였다. 김충실, 「송사형 고전소설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1, 77면.

정규훈은 쥐가 표면적으로는 곡식을 축내는 쥐무리요, 내면적으로는 곡창을 좀먹는 무리라 하고(101면), 창신에 대해서는 큰 쥐를 단순한 쥐로 볼 때 창신은 인간의 대변자요, 큰쥐를 간악한 도적무리로 볼 때 창신은 국가사회질서나 국가적 통치력의 상징적 권화라 하였다(102면).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구체화시키지 못하였다. 정규훈, 「조선후기 우화소설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88.

8)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398면.

9) 김재환, 앞의 논문, 60면.

10) 졸고, 「서옥기의 창작방식 연구」, 『동양고전연구』 12, 동양고전학회, 1999.

본고는 필자가 앞서 한 작업의 후속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서옥기」의 작가의식을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옥기」를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켜 해석한 대부분의 선학의 시각에 대해 필자는 공감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기왕의 업적을 일정하게 수용하고 출발하는 셈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작품을 보게 된 이유는 먼저 작품 말미의 서술자 논평에서 「서옥기」가 단순히 쥐의 옥사에만 관련지어 지은 작품이 아니라는 점이 암시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작품 전반에 걸쳐 표면적으로 또는 이면적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 있다는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본고는 거시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작품을 본다는 점에 있어서 기왕의 연구물과 다를 바 없으나, 미시적으로는 그 시각이나 연구방법이 다르다. 「서옥기」를 비롯한 우화소설에 대해 향촌사회와 관련시켜 해석하려는 것이 기왕의 대체적인 연구 경향이었다.¹¹⁾ 이러한 경향은 이제 하나의 정설로 고착화되는 느낌이다. 실지로 우화소설의 내용이 사회적 실상에 부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우화소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작품 해석을 그와 같이 편향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소설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다르게 볼 여지가 우화소설에도 있기 때문이다. 寓意性이 多義性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문제는 작품의 일면, 또는 문면만을 보고서 주제를 도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서옥기」와 같이 수많은 전고가 등장해 그 주제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그러한 태도를 지양해야 될 물론일 것이다. 그런데, 「서옥기」에 대한 기왕의 연구를 보면, 작품의 일면 또는 문면만을 토대로 주제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¹²⁾ 본고는 우화소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문면과 이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11) 우화소설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이러한 입장에 선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정출현과 민찬의 논문이 있다. 정출현, 앞의 논문; 민찬, 앞의 논문.

「서옥기」를 다른 정학성 역시 향촌사회의 부패와 관련시켜 작품을 해석하였다. 정학성, 앞의 논문.

12) 가령, 「서옥기」에 대해 유일하게 작품론을 쓴 정학성의 경우, 작품에서 탐관오리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정학성, 앞의 논문, 234~236면.

먼저, 서사전개를 살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로 한다. 「서옥기」에 있어 서사의 전개는 주인공인 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 의미파악도 쥐의 행태 변화에 따라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쥐가 곡식을 도적질하고, 이에 따라 창신에 의해 문초를 당하고, 끝으로 처형을 당하는 부분으로 각기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앞의 작업을 토대로 하여 「서옥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의미를 살피기로 한다. 이는 작품이 표방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작업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궁극적 목적인 작가 의식을 논하기로 한다. 이는 작품에 우의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작가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서옥기」의 이본은 현재 규장각본, 국립중앙도서관본(이하 국도본으로 약칭함), 북한본 등 3종의 한문본¹³⁾이 발견되었는데 큰 차이는 없으며 이본간의 직접적인 授受關係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⁴⁾ 본고의 대본은 규장각본을 위주로 하고 때에 따라 국도본을 이용하기로 한다.

2. 서사전개의 양상과 의미

1) 도적질

「서옥기」는 쥐가 곡식을 훔쳐먹는다는 쥐의 습성을 기반으로 작품이 전개된다. 작품 내에서도 쥐가 곡식을 훔쳐먹는 존재라는 이미지는 큰쥐에 의해 이미 암시가 되고 있다. 곧 큰쥐가 『시경』의 글귀를 내세우며 자신과 인간의 관계가 오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경』이란 「魏風」「碩鼠」를 가리킨다. 그런데 「석서」는 바로 쥐가 곡식을 훔쳐먹는 것을 소재로 한 시이

13) 세 이본은 현재 영인이 되어 있거나 활자화되어 있다. 국도본 「서옥기」는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2(아세아문화사, 1980)에 영인이 되어 있고, 규장각본 「서옥설」은 임명덕 주편, 『한국한문소설전집』 6(중화민국: 중국문화학원, 1980)에 활자화되어 있다. 북한본은 리철화 역, 『림제·권필작품집』(문예출판사, 1990)에 활자화·번역되어 실려 있다.

14) 각 이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졸고, 앞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 「서옥기」는 이와 같이 쥐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¹⁵⁾을 배경으로 하여 생성된 작품이다. 「서옥기」에 보이는 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有大鼠，窟於坳凹，身長半尺，毛深數寸，狡黠詐譎，甲於衆鼠，衆鼠推以為長。炊鼎穿足，即其謀也，貓頭懸鈴，亦其計也。其巧於逞奸，捷於運智，如此也。(국도본 1앞)

큰 쥐가 있었는데, 움푹하게 굴을 파고서 지냈다. 몸의 길이는 반 자이고 털의 길이는 몇 치 되었는데, 교활하고 간사함이 뜻밖 가운데 으뜸이었기 때문에 뭇쥐가 그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 밥솥 밑을 뚫은 것도 그의 꾀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도 그의 계획이었으니, 간사함에 공교롭고, 지혜를 쓰는데 민첩한 것이 이와 같았다.¹⁶⁾

이와 같이 서술자는 쥐를 교활하고 간사한 동물로 묘사하며 쥐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¹⁷⁾ 「서옥기」는 이와 같이 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서옥기」에서 우두머리인 큰쥐[大鼠]¹⁸⁾가 쥐 무리를 이끌고 곡식을 훔쳐

15) 『시경』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에서는 김시습의 『頑鼠』(『梅月堂詩集』 권5), 정약용의 『猢猻行』(『牧民心書』 권11)이 창작되기도 했다.

한편 기록문학이 발달한 서양에서도 쥐가 곡식을 약탈했다는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프란체스코 산토안니, 이현경 옮김, 『쥐와 인간』, 시유시, 1999, 28면 참조.

16) 「서옥기」는 북한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으나(리철화 역, 앞의 책)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본고에서 인용문의 번역은 필자가 한 것이다.

17) 이러한 서술자의 관점은 등장 인물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는데, 창신이 쥐가 고인한 군물의 말을 듣고서 쥐에게 하는 말들(倉神覽供畢, 亦使神兵守之, 心竊疑之, 怒色勃然. 又詰於鼠曰: “衆言汝奸, 余之不信, 自今以後, 大可驗矣. …….” : 규장각본 9뒤)이라든지, 군물이 쥐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 등(兎供之曰: “伏以, …… 何物邪穢之虫, 妄出援引之說 …….” : 규장각본 5뒤, 馬供之曰: “伏以, …… 奸狀躍如, 何足疑也.” : 규장각본 8뒤)이 그것이다.

또 그러한 의식은 작품全篇에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기도 한데, 쥐가 문초를 당할 때 군물 중 하나를 끌어들이는데, 그 군물을 창신이 무죄로 인정하면 다시 다른 군물을 끌어들이는 모습에서 그러한 점을 알 수 있다.

18) 이하 표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큰쥐[人鼠]”를 일반적인 쥐와 구분을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쥐”라 칭하기로 한다.

먹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주거와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천적에게 잡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一日，與衆鼠謀曰：“我輩居無障蔽，食乏困積，數被人犬之憂，我之謀生，可謂拙矣。吾聞太倉之中，白粲委峙，紅腐充溢，若穴其外，而處其間，枕香梗，藉美粱，饒口而食，扣腹而嬉，則豈不樂哉。(규장각본 1앞)

하루는 큰쥐가 뭇쥐들과 모의를 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사는 곳은 가릴 만한 울타리도 없고, 먹는 것도 부족하며, 자주 사람과 개에게 잡히는 근심이 있지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것은 가히 궁색하다 할 것이다. 내 들으니, 큰 창고 안에는 흰 쌀이 산처럼 쌓여 있고, 쌀이 썩어 넘쳐난다 하니, 우리가 만일 창고를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있으면서, 향기로운 쌀을 베개삼고 맛난 곡식을 자리삼아, 곡식을 입에 물리도록 먹고 배를 두드리며 즐긴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큰쥐가 이렇게 말한 것은 모두 자신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주거와 음식은 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그러한 필수적인 것이 충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개와 인간 등의 천적은 쥐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거와 음식, 천적의 삼중고에서 벗어나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자 한 것은 모든 쥐들의 소망이었으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고, 그들이 쓰는 피도 항상 궁색하기 짜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마침 창고가 눈에 띄어, 큰쥐는 드디어 뭇쥐를 선동하게 되는 것이다. 작품에 쥐가 곡식을 훔쳐먹는 것에 대한 이유가 쥐 자신에 의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쥐가 세계와 겪는 갈등이고, 또 작품을 끌어가는 動因인 것이다.

그렇다면, 쥐가 그렇게 갈망한 창고는 쥐들에게 어떤 곳인가? 잘 곳 없는 쥐들에게 있어 곡식창고는 하나의 이상향이다. 창고는 쥐가 맞닥뜨렸던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다. 가릴 것이 있으므로 주거를 해결해 주며, 곡식이 쌓여 있으므로 음식을 해결해 주며, 벽으로 둘러쳐 있으므로 개나 인간 등 천적의 눈에 띄지도 않는다. 쥐에게 있어 창고 밖이 고난의 장소라면 창고 안은 안락의 장소인 것이다. 이와 같이 창고는 쥐에게 전혀 다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쥐와 인간 그리고 곡식창고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옥기」에는 인간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작품에 나타나

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은 작품에 곡식창고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곡식창고는 인간이 자신들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므로 인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곡식창고는 곧 인간의 형상화라고 달리 말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생기게 된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서서 논의를 전개한다.

창고는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아무 데에나 지을 수는 없다.

古者，倉舍必構於靜閑之處，蓋避村火延燒之患也。(규장각본 1앞)

옛날에 창고는 반드시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 지었는데, 이는 마을에 불이 날 경우 연이어 창고까지 타버려 생기는 근심에서 벗어나고자 해서이다.

창고의 위치를 설명하는 대목으로서 창고가 지닌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창고는 마을 성원들의 필수품인 쌀을 보관하는 곳이므로 혹 마을에 불이 날 것에 대비해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짓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에게 중요한 창고에 쥐가 들어가 곡식을 훔쳐먹은 행위는 쥐와 인간이 그 동안 함께 지내왔던 공존 관계를 파괴한다는 의미가 있다. 쥐가 자신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곡식창고에 들어간 행위는 결국 자신의 천적에 대한 대단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쥐가 창고에 들어가려고 해도 만일 인간이 관리를 충실히 했다면 쥐는 창고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쥐가 창고에 들어가게 된 데에는 인간들의 허술한 창고 관리가 큰 몫을 하고 있다.

是以，倉之四方，荒莽箇鬱，亂石磚礪，苔髮縈於墻壁，土花蝕於階阤，閭廡遠而履舄罕矣。(규장각본 1앞)

이 때문에 창고의 사방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돌멩이가 어지럽게 널려 있으며 이끼 덩굴이 창고벽에 얹혀 있고, 이끼가 계단을 좀먹고 있었으며, 여염집이 멀어 인적도 드물었다.

앞의 예문 바로 뒤의 구절이다. 이 구절과 앞 구절을 연관지어 본다면 창고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황폐하게 되고, 따라서 쥐의 공격

을 받게 되는 것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도 있다. 또 이 구절은 쥐가 드나들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⁹⁾ 이러한 해석은 일견 타당한 것이다. 그런데 작품을 이렇게만 이해하고 만다면, 왜 작품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설정된 창고가-비록 마을에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황폐해지도록 방치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어려워진다.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그래서 제기된다. 작품에서는 창고가 황폐해진 이유로서 ‘是以’라는 문법적 표지를 사용하여 답하고 있지만, 실상 ‘是以’에 담긴 의미는 ‘이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是以’를 기준으로 창고의 상황은 전혀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창고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뒤에서는 창고가 황폐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是以’라는 짧은 어구에는 쥐가 곡식창고를 뚫고 들어가게 된 사정이 들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⁰⁾

창고는 쥐들에게 있어서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보장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쥐들의 시각과는 별개로, 창고 자체는 이미 황폐해진 상태이다. 이는 모순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실상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쥐들의 눈에 비친 창고는 평상시에는 자신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벽이다. 그리고 그 벽 안에는 자신들이 겪은 것과는 전혀 다른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쥐가 공격할 때의 창고는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쥐들은 손쉽게 창고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쥐가 창고에 들어가게 된 것은 쥐들에게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쥐들의 의지와 창고 자체의 문제 등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쥐는 이와 같이 창고가 방치된 틈을 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고에 들어가 곡식을 훔쳐먹다가 결국에는 창신에게 잡히는 것이다. 倉神은 창고를 지키는 신으로 등장하는데, 설은 인간의 대변자라 할 수 있다.²¹⁾ 그러

19) 김충실은 창고의 위치가 마을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이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도적을 맞아도 몰랐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다. 김충실, 앞의 논문, 94면.

20) 그러한 사정은 작품 全般에 우의적으로 나타나 있다.

21) 정규훈은 큰쥐를 단순한 쥐로 볼 때 창신은 인간의 대변자라 해석할 수 있다 하였

므로, 창신의 말은 곧 인간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로 보아도 무방하다. 창신과 쥐는 작품에서 대립적 존재로 등장하는데, 이들의 대립은 경제적인 면, 신분 등 다양한 것을 매개로 하고 있다.

今夫橫日堅鼻，最靈於物，而終歲服田，尙多阻飢，况老物世業蕩殘，生計單薄，奉於口腹之養，饑於糠粃之微，夫豈樂爲是哉。寔出不獲已也。罪雖罔赦，情則可恕。(규장각본 1뒤~2앞)

지금 눈은 가로로 뜨여 있고 코는 우뚝 선, 만물 가운데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해가 다하도록 밭에서 일을 해도 오히려 굶주리는 자가 많거늘, 하물며 이 늙은 것은 대대로 잔약한 것으로서 생계를 꾸릴 수 없어 배를 채우는 데에 끌려 쭉정이를 탐했으니 어찌 이러한 일을 즐겨서 했겠습니까? 참으로 부득이해서 한 것입니다. 죄는 비록 벗어날 길 없지만 그 情을 생각하면 용서할 만합니다.

쥐가 창신에게 끌려와, 인간에 견주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만물의 영장으로 불리는 인간도 1년 내내 일을 해도 굶주리거늘, 자신들같이 쇠잔한 것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작품의 상징적 의미가 극도로 강화된 나머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화소설에서 견지하는 寓意가 그 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의의 대상이 문면에 그대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인간의 현실 상황이 문면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²²⁾

애초에 쥐가 인간의 필수품인 곡식을 훔쳐먹은 테에는 인간은 쥐 자신들보다는 훨씬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전체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쥐가 말한 바, 썩은 쌀이 넘쳐나는 창고 안의 풍경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인용문에서 쥐의 말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쌀이 썩어 넘쳐나도록 한가로이 배 두드리며 지내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1년 내내 고생해도 굶주려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물론 쥐가 인간에 견주어 말한 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의도가 짙게 배어 있지만, 그러한 말 가운데 서술자는 인간의 실제적인 현실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는데, 본고는 이와 견해를 같이한다. 정규훈, 앞의 논문, 102면.

22) 서술자가 담담하게 일정한 의식을 견지한 채 작품을 끌고 가기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의적으로 나타내어야 할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고 서술자의 의식이 노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쥐가 여기서 말한 인간은 인간 가운데에서도 기득권층에 수용되지 못한 존재들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먼저 ‘밭을 간다’는 말에서 그 인간은 한가로이 글을 읽으며 지내는 부류들과는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또 ‘굶주린다’는 말에서 그 주체는 애써 농사를 지으면 돌아오는 수확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굶주림을 면할 수 없었던 당시 일반 농민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인용문에서 쥐는 자신들이 창고의 곡식을 탐한 것은 즐겨서 한 일이 아니고 부득이해서 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곧 자신들이 창고의 곡식을 훔쳐먹은 것은 환경 때문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²³⁾ 이에 대해 창신은 쥐가 처할 곳은 城이나 사당이며, 먹을 것은 썩은 흙이라 말하며,²⁴⁾ 그러한 환경은 쥐들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쥐가 그러한 운명을 거스른 것을 준열히 꾸짖고 있다.²⁵⁾ 쥐가 환경의 영향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창신은 환경 이전의 문제로서 쥐가 운명적으로 처한 위치 내지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⁶⁾

쥐와 창신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작품 전반을 관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창신이 말한 운명적인 위치 내지 신분에 대해 서술자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한 면은 쥐와 群物이 대립하는 間招 장면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23) 쥐가 자신의 행위를 환경 문제로 돌리는 것은 작품 결말 부분에서 上帝에게 자신의 행위를 전가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은 쥐가 처한 환경으로서, 쥐가 곡식을 훔치게 된 동기로 나타나는 음식, 주거, 천적의 세 가지 면을 나타내고,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신분 등도 포함하게 된다.

24) “城社乃汝之所, 黄壤卽汝之食.”(규장각본 1권)

25) “汝何引類呼朋, 穴居於此, 傷百年之積, 而絕萬民之天乎. 當并與族類, 快施磔刑, 以絕攘窃之禍.”(규장각본 1권)

26) 쥐와 창신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작품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주제의 형성에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

2) 문초

『서옥기』에 보이는 쥐의 문초 장면은 양적으로 작품의 절반을 넘을 만큼 많을 뿐 아니라, 그 의미도 작품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기왕의 연구 중 주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던 논문들은 주로 쥐와 창신의 상징적인 의미만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주제를 추출하는 데 힘 쓴 나머지, 작품의 서두 부분을 위주로 탐구하였고, 이 문초 부분에 대한 고찰은 소략한 편이었다. 본 절에서는 작품 내에서 문초 장면이 지니는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곡식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창신에게 끌려온 쥐는 창신으로부터 문초를 받게 된다. 쥐는 사주자를 대라는 창신의 명령에 84종의 동식물, 神들을告引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쥐의 입을 통해, 또는 쥐의 상대역으로 나온 동물의 입을 통해 각각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 ① “老物, 質雖么麼, 性則虛明, 粟星辰之精, 受天地之氣, 雖不能首於衆品, 亦未必居於下流.”(규장각본 1뒤)
“늙은 것이 성질은 비록 약하나 성품은 비고 밝아 별의 정기를 품수하고 천지의 기운을 받았으니, 비록 못 품계 가운데 우두머리는 되지 못하나 또한 下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 ② 麋供之曰: “伏以, 萬物之中, 一種最微.”(규장각본 4앞)
두더지가 공사를 올렸다. “저는 만물 가운데 가장 미미한 한 종의 동물입니다.”
- ③ 狸供之曰: “伏以, 林下冷族, 谷裡賤蹤.(규장각본 4 뒤)
삵이 공사를 올렸다. “저는 숲의 냉락한 족속이고 골짜기의 천한 종입니다.”
- ④ 犢供之曰: “伏以, 水中餘流, 岩下賤流.”(규장각본 5앞)
수달이 공사를 올렸다. “저는 물의 끄트머리 족속이고, 바위에 사는 천한 족속입니다.”
- ⑤ 羊供之曰: “以角者流, 處毛群末.”(규장각본 6앞)
양이 공사를 올렸다. “저는 뿔달린 족속으로서 털동물 가운데 끝에 위치합니다.”
- ⑥ “…… 蟻則不過爲一蟲之微”(규장각본 30앞)²⁷⁾

27) 줄고에서 이미 예로 든 것들이나, 본고의 논의 전개상 필요하므로 다시 예로 들었

“개미는 미미한 곤충에 불과합니다.”

①은 쥐가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장면이다. 전체 동물 중에서 그렇게 下流는 아니라 말하고 있다. ②에서 ⑤까지는 쥐의 告引으로 불려나온 동물 가운데 일부의 말이다. 각 동물은 자신이 同類 가운데 최하위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⑥은 쥐가 거미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장면으로서 곤충 종에서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서옥기」에는 각 동물의 위상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대체로 위의 예와 같이 매우 천한 동물일 경우에 나타난다. 동물 가운데 존귀하거나 신화적인 동물은 그 동물 내에서의 위치가 위의 예와 같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러한 동물에 대해 쥐가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에서 그들이 동물 내에서 상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① 獸則君子之所稱, 古人之所賢, 明神亦既敬待, 老物不敢背毀.(규장각본 14앞)

“기린은 군자가 칭찬한 동물이요 옛 사람이 어길게 본 동물로서 明神 또한 이미 공경하며 대하였으니 이 늙은 것이 감히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② 至於龍虎, 則非不神也, 非不雄也, 暴殄天物者, 非虎乎, 傷人檣事者, 非龍乎? 虎之性暴, 龍之心忮, 古亦有云, 今不更論, 而神之敬信, 一至於此, 若使老物健如虎大如龍, 則神不以爲竊粟之偷乎? 所悲者, 處於汚下, 而體亦微細也.(규장각본 14뒤)

“용과 호랑이가 신령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요, 영결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나, 자연물을 진멸하는 것이 호랑이가 아니며 사람의 농사지은 것을 상하게 하는 것이 용이 아닙니까? 호랑이의 성질은 포악하고 용의 심성은 괴팍하다는 것은 옛날에도 이르는 말이 있었으니 지금 다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신께서 저들을 공경하고 믿는 것이 한결같이 이와 같으니, 만일 이 늙은 것이 호랑이와 같이 건장하고 용과 같이 컸다면 신께서는 저보고 곡식을 훔쳤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슬픈 것은 제가 더러운 데에 처하고 몸 또한 조그마하다는 것입니다.”

③ “鸞鶴與鳳凰、孔雀，是非既素，曲直可置，而獅象麒麟，既以異獸而得免，則禽之靈者，獨不得脫乎”(규장각본 32뒤~33앞)

다. 줄고, 앞의 논문.

“난새와 학, 봉황과 공작과 관련해서는 옳고 그른 것이 이미 전도되었고, 그하고 바른 것이 벼려졌습니다. 사자와 코끼리, 기린 등이 이미 신이한 동물이라 하여 죄를 면했으니, 날짐승 가운데 신령한 것들이 홀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①의 기린, ②의 용과 호랑이 ③의 난새와 학, 봉황, 공작, 사자, 코끼리 등은 동물 내에서 가장 상위에 있다는 점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②와 ③은 각 동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쥐의 반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②에서는 자신이 만일 호랑이와 같이 건장하고 용과 같이 커다면 곡식을 훔쳐먹은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또 ③에서는 사자 등이 들짐승 가운데 신이한 동물이라 하여 죄를 면했으니, 날짐승 가운데 신령한 것이라 일컬어지는 난새 등도 역시 죄를 면할 것이라 하고 있다. 쥐는 동물이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 동물의 태생에 의해 판가름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태생에 의해 고착화한 신분 질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옥기」에서는 이와 같이 문초 장면을 통해 각 동물의 위치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현실 사회를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寓意가 도를 넘어 실제 작품 창작의 바탕이 된 현실을 비판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²⁸⁾

門神戶靈，受天之命，各受其職，而驚動愚民，私享溼祀，冷炙殘盃，以充饑欲。貪官汚吏，竊簿盜粟，而慢不省悟，恬不撫呵。初既共之於巨猾，反欲委之於微物，老身之冤，雖不足恤，療曠之責，其可以捨乎？(규장각본 11앞)

「門神과 戶靈은 하늘의 명을 받아 각각 그 직책을 받았으나, 어리석은 백성을 놀라게 해 사사로이 도가 지나친 제사를 누리고 식은 전과 먹다 남은 술잔으로 탐욕을 채웠습니다. 탐관오리가 장부를 훔쳐내 곡식을 도적질해도 게을러 살피지 못하고 편안히 있으면서 꾸짖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미 저 큰 교활한 놈과 같이 죄를 저지르다가 도리어 저 같은 미물에게 뒤집어씌우니, 이 늙은 것의 원통함은 비록 구휼받지 못한다 해도 나라재산을 탕진한 저들의 책임은 어찌 버릴

28) 이러한 점은 서술자 의식이 담담하게 견지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앞에서 살폈던 바, 서술자가 ‘굶주리는 인간’을 말했던 것과 같은 양상이다.

수 있겠습니까?

쥐가 門神과 戶靈을 비판하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 탐관오리가 장부를 조작하여 곡식을 훔쳐내는 것을 들어 탐관오리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²⁹⁾ 이러한 비판은 바로 선행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는

29) 정학성은 이 장면을 들어 「서옥기」 창작의 직접적인 계기는 환곡제의 모순과 폐해 라 한 바 있다(정학성, 앞의 논문, 235면). 본고는 이 장면에 한해서는 환곡제 등 특 정한 제도의 폐해라 하는 데 견해를 같이하나, 이를 근거로 「서옥기」 전체의 주제를 도출하는 데에는 견해를 달리한다. 작품의 주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학성은 쥐가 탐관오리를 상징한 것이라 하고, 탐관오리로 상징된 쥐가 탐관오리에 대해 욕하는 것은 반어라 하였다(정학성, 앞의 논문, 235~236면).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反語는 영어 irony를 번역한 말이다. 아이러니에 대해 개괄적이면서도 풍부한 예를 제시하고 있는 한 책에 따르면(D. C. Muecke, 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아이러니의 개념은 예로부터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 두 가지는 말의 아이러니와 상황의 아이러니이다. 말의 아이러니는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황의 아이러니는 예를 들면, 소매치기가 소매치기 당하는 상황과 같이 말이 아닌, 상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D. C. Muecke, 문상득 역, 위의 책, 20면). 따라서 우리말 反語는 용어상으로는 말의 아이러니에 해당하는 셈이지만, irony의 譯語인 만큼 상황의 아이러니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이러니의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정학성이 쥐의 행동을 두고 반어라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단 말의 아이러니라 한다면, 곧 쥐가 탐관오리를 욕한 것을 칭찬 또는 응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연쇄적으로 門神과 戶靈 역시 칭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쥐와 군물간에 공방을 벌이는 작품의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상황의 아이러니의 관점에서 보자. 상황의 아이러니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의 회생자가 어떠한 한면에 대해 자신에 차 있다는 점이며, 정작 상황이 일어날 때에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다만 관객(연극의 경우)이나 독자(소설의 경우)는 아이러니의 상황을 감지하고 있어야 한다(D. C. Muecke, 문상득 역, 위의 책, 46~52면). 관객이나 독자가 상황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은 작품의 앞뒤 문맥에서 아이러니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서옥기」의 경우, 작품 내에서 쥐가 탐관오리를 의미한다는 어떠한 장면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쥐가 탐관오리를 상징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불완전한 작품 외적 자료를 근거로 추론한 것일 뿐이다. 또 설사 쥐가 탐관오리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제시한, 상황의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쥐가 직접적으로 탐관오리를 공격하는 것은 이미 쥐 자신이 아이러니를 일으키는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이 되므로 상황의 아이

당대 사회의 한 제도인 환곡제 등의 폐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⁰⁾ 이 독특한 장면은 작품이 이미 우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문초 장면에는 쥐나 군물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의식이 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한편, 쥐에 대한 서술자의 목소리 또는 태도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나타나 있다. 쥐의 교활함을 나타내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창신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 있기도 하다.³¹⁾ 그리고 쥐가 한 쌍의 동물을 고인하고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한 쌍의 동물을 고인하는 모습에서도 역시 교활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³²⁾ 이와 같이 서술자는 쥐의 교활한 면을 시종일관 보여주고 있다.

3) 처형

쥐가 자신에게 사주한 자를 대라는 창신의 명령에 84종의 群物을 告引 하지만 결국은 군물을 무고한 것으로 창신에 의해 판결을 받는다. 그리하여 쥐는 처형을 받게 되는데, 사실 쥐의 처형은 쥐가 곡식을 훔쳐먹고서 끌려왔던 때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倉神 …… 數之曰：“…… 傷百年之積，而絕萬民之天乎。當并與族類，快施磔屠，以絕攘窃之禍。……”(규장각본 1뒤)

창신이 …… 수죄하여 말하였다. “…… 백 년 동안 먹을 양식을 없애고 만백 성의 곡식을 탕진했는가? 마땅히 너와 너의 족속을 갈기갈기 쳇어발겨서 곡식이 도둑질당하는 화를 없애겠노라.”

쥐는 창신의 이 말에 자신이 곡식을 훔쳐먹은 사실은 순순히 시인하지만 죽음은 모면하기 위해 군물을 告引하는 것이다.

러니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정학성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0) 정학성, 앞의 논문, 235면.

31) 倉神覽供單，亦使神兵守之，心竊疑之，怒色勃然。又詰於鼠曰：“衆言汝奸，余之不信，自今以後，人可驗矣。……”(규장각본 9뒤)

32) 이에 대해서는 졸고, 앞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쥐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창신이 쥐에게 사주자를 대라고 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단독범행이라면 그러한 요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독범행과 공모자나 사주자가 끼는 범행은 범행의 규모와 과급에 있어 분명히 차이가 있다. 단독범행은 범행이 우발적이고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공모자나 사주자가 끼는 범행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단위의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쥐는 창신의 엄명에 84종의 이들을告引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무고였음이 밝혀진다. 창신은 쥐의 그러한 행위가 “卒歸虛妄”(규장각본 29앞)하게 되었다며 쥐를 꾸짖고, 쥐의 그러한 모습을 “奸僞之狀”(규장각본 29앞)이라 규정하고 있다. 쥐가 群物을 무고한 것은 죄가 강화되어 창신이 그를 죽이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³³⁾ 실제로 쥐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작품의 전개상 쥐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창신은 쥐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神兵에게 명하여 五刑의 기구를 갖추게 하고, 큰 솔[鑊]에 물을 끓여 명한다. 창신이 쥐를 한바탕 꾸짖고는 다음과 같이 신병에게 명령을 내린다.

仍命神兵曰：“先以利劍，斬鼠之喙，剝鼠之皮，裂其肢體，決其胸腹，斫其尾，截其耳，燿其目，斷其頭，投其腰脊於沸湯之中。至烹爛消燬，無一片肥肉而後已。”(국도본 22뒤)

이에 창신이 신병에게 명령하였다. “먼저 날카로운 칼로 쥐의 부리를 베고, 껌질을 벗겨라. 그리고 그 사지를 찢고 가슴과 배는 터트려라. 꼬리는 베어 버리고 귀는 절단하고, 눈은 빼고 머리는 잘라 버려라. 쥐의 허리와 등은 끓는 물 속에 던져 넣고 삶아 문드러질 때까지 두어 한 조각의 고기도 없게 한 후에 그쳐라.”

창신이 쥐를 처형하기 위해 언급한 것들은 모두 극형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큰 솔인 鑊을 이용한 烹刑,³⁴⁾ 부리 베기, 껌질을 벗기는 剝皮, 사지를

33) 졸고, 앞의 논문 참조.

34) 鑊은 삶아 죽이는 烹刑에 쓰이던 도구이다. 중국에서 최초의 팽형을 당한 이는 문왕의 아들 백읍고였다. 殷의 紂王이 문왕(당시 서백)을 유리에 가두고 백읍고를 죽여 국을 끓인 후 문왕을 속여 국을 마시게 한 후, 문왕을 욕한 것이다. 왕용쿠안, 김장호 옮김, 『酷刑』, 마니아북스, 1999, 84면 참조.

찢는 車裂, 내장을 꺼내는 抽腸, 귀 자르기, 눈을 빼는 挖眼, 머리를 자르는 斬首 등³⁵⁾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형벌로 인식되던 것들이다. 위 형벌 중 한 가지만으로도 극형에 해당하는데, 이 모두를 혼합하고 있다는 것은 쥐의 죄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임을 다시 한 번 나타내고 있다.

창신의 노여움에 쥐는 자신의 죄를 계속 변호하다가 급기야는 더 이상 빠져 나갈 수 없게 되는 결정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倉神大怒曰：“先以石，擊碎牡齒。”鼠連馨人號曰：“天之神，地之祇，野之魑
魅，山之鬼夔鼈，蒼蒼之松，鬱鬱之栢，蓬蓬之風，囂囂之雲，冥冥之霧，懸懸之
露，落落之星辰，皎皎之日月，皆上帝之命，使我恣食倉中之粟矣，老身抑何罪
焉?”(규장각본 33앞뒤)

창신이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먼저 돌로 이빨을 깨 부숴라.” 쥐가 연이어 큰 소리를 질러 말했다. “하늘신, 땅신, 들도깨비, 산귀신, 푸르른 소나무, 울창한 잣나무, 떠도는 바람, 덮인 구름, 아득한 안개, 축축한 이슬, 반짝이는 별들, 회디 흰 해와 달이 모두 상제의 명령을 받들어 저에게 창고의 곡식을 마음대로 먹게 했으니 이 늙은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주한 자를 대라는 창신의 요구에 쥐는 온갖 신과 자연현상이 상제의 명으로 자신으로 하여금 창고의 곡식을 먹게 했으니 자신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며 반문하고 있다. 이에 이르러 쥐는 더 이상 죽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 바로 상제의 권위를 심하게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창신이 인간의 대변자로 작품에 등장하고 있다면, 상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 설정되어 있음은 위의 쥐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위를 지닌 상제에게 자신의 죄를 돌린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상제의 등장은 쥐가 죽게 된다는 사실성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쥐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 나오는 天, 地, 野, 山, 松, 栢, 風, 雲, 霧, 露, 星辰, 日月 등의 자연 현상은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운행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상제는 이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 이것들을 포함한 온갖

35) 본 논문에서 쓴 형벌의 이름은 모두 왕용쿠안이 짓고 김장호가 옮긴 앞의 책에서 차용한 것이다.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이다. 쥐의 입장에서 볼 때 상제의 명을 이 자연현상이 받들었다는 것과 자신이 곡식을 먹은 것은 자신의 직분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볼 때 대등한 것이다. 자연현상은 제 자리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했고, 자신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곡식을 먹었다는 것이다. 쥐의 이 말은 바로 상제가 주관하는 사회의 구조를 풍자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분에 대한 서술자의 일관된 의식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쥐는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상제의 권위를 훼손시킴으로써 人逆罪라는 죄명을 더 이상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倉神撫掌大怒曰：“造化翕多事，生此惡種，公然貽害於萬物，使之歸怨於上穹物祖，安得辭其責乎？其所連累千百其種，且其不道之言，誣及上帝，此大逆也。不可不上之於天，以俟處分矣。”(규장각본 33위)

창신이 손바닥을 어루만지면서 크게 노해 말하였다. “조화옹이 일이 많으셔서 이러한 악종을 만들어 공연히 만물에 해를 끼치고 결국에는 원망이 하늘의 조물주에까지 돌아가게 하니 어찌 꾸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연루시킨 자가 천백여 종이고 또 도에 맞지 않는 말로 무고한 것이 상제에까지 미쳤으니 이는 大逆이다. 하늘에 상달하여 처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도다.”

쥐의 상상을 초월한 발언에 창신은 자의로 처결할 수 없어 상제에게 상달하기로 한다. 쥐가 상제를 입에 올린 것은 상제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는 의미 외에 상제에 의해 지배되던 사회 질서를 역시 훼손시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르러 쥐의 죄가 ‘人逆’임이 문면에 뚜렷이 드러나 있다.

창신의 상달에 상제는 쥐의 죄를 “奸猾之罪”라 규정하고 그에게 천벌을 내리라고 창신에게 명한다. 결국 쥐는 창사 앞에서 처형당하고 그의 몸은 자신이 고인했던 온갖 동물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게 되고, 쥐의 소굴은 쥐들이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흙으로 메워지게 된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쥐에 의해 고인당한 동물들이 이미 죽은 쥐를 다시 갈기갈기 찢어발긴다는 설정은 작품 전개상 쥐에 의해 무고를 당한 이들이 복수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인당한 동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 죄없이 법정에 불려나온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따라서 자신을 법정에 나오게 만든 쥐는 분노의 대상인 것이다.³⁶⁾ 상제가 이들에게 쥐를 찢게 해 분을 풀게 한 것은

고인당한 동물들의 심정을 감안해 내린 명령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쥐는 곡식을 훔쳐먹은 별로 창신에 의해 이미 죽음을 당하고, 또 동물을 무고한 데 대한 별로 동물들에 의해 한 번 더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옥기」에서 쥐는 자신의 죄에 대해 각기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3. 작품의 사회적 의미

우화소설이 현실참여적인 면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환기해 보면, 쥐의 범죄행위와 죽음은 당대 사회의 일면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한 시각에서 「서옥기」를 논할 때 핵심적인 것은 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작품 전체의 의미와 동일한 맥락이어야 할 것이다.

앞장에서, 쥐가 기본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식창고를 뚫은 것은 쥐의 습성을 반영한 측면이 짙은 것이라고 논하였다. 그런데 작품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쥐가 저지른 죄는 그와 같이 피상적인 측면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쥐의 삶;引, 그리고 극형을 받고 참혹하게 죽는 쥐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작품을 사회적 상황과 긴밀히 연결시켜 해석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특히 쥐의 군을 告引과 처형은 대역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앞장에서 말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쥐는 일군의 체제 저항세력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서옥기」에서는 큰쥐[大鼠]와 뭇쥐[衆鼠]가 등장한다. 큰쥐의 명령을 받는 뭇쥐는 그 수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쥐의 일반적 특질을 감안하면 그 수는 매우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³⁷⁾ 「서옥기」 작가가

36) 이러한 기분은 각 동물이 공사를 올릴 때에도 이미 드러나 있다.

貓供之 H: “…… 慘不殄滅 反被噬吞”(규장각본 3뒤)

蚌供之 H: “…… 駭汗遍躰 怒氣撐腹”(규장각본 18앞)

37) 쥐는 일반적으로 多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쥐 전문가에 따르면, 쥐 가운데 한 종이며 우리에게 흔히 시궁쥐로 알려진 라투스 노르베기쿠스(*Rattus norvegicus*)는

쥐를 작품에 등장시킨 것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이유 외에, 이와 같은 쥐의 특성을 작품에 반영시켜 논의를 폐고자 해서였던 것이다.

쥐를 이렇게 파악하였을 때, 쥐가 공격하는 대상인 곡식창고는 국가 또는 국가의 기틀로 해석할 수 있다.³⁸⁾ 앞장에서 곡식창고가 ‘是以’를 전후하여 상태가 변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곡식창고의 황폐화는 바로 국가의 기틀이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굳건하게 지켜져 왔던 중세체제가 그 자체의 모순과 이로부터 비롯된 시대적 요구에 의해 무너져 가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달리 말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사회는 기본적으로 농업 사회였다. 이 말은 농업이 국가의 재정기반이었고, 농업 경제의 건재 여부는 국가의 安危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국가는 애초에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하고서 경제질서를 확립했다.³⁹⁾ 이렇게 농업을 중시하는 면은 조선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것이었다. 그래서 조선 초기 부국강병의 주된 내용은 9년분의 국가재정을 곡식으로 비축하는 것이었을 만큼,⁴⁰⁾ 농업은 국가의 기틀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곡식을 두고 백성의 하늘이라 하여 흔히 民天이라는 말을 썼고,⁴¹⁾ 「서옥기」에도 그러한 용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⁴²⁾ 작품이 산생되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곡식창고를 국가 또는 국가의 기틀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 해에 세 차례에서 다섯 차례 새끼를 낳고, 한 번에 네 마리에서 열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한다. 이 동물이 3년을 산다고 하면 대략 13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약 이 동물들이 인간의 평균수명(70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새끼가 새끼를 낳는 방식으로 계속 낳는다면 쥐의 총수는 5 뒤에 0을 42개 붙인 수가 된다. I. Asimov, Catastrofi a scelta(선택할 수 있는 재앙), Mondadori, 1980, p.310 (프란체스코 산토안니, 이현경 옮김, 앞의 책, 71~72면에서 재인용).

38) 앞장에서 곡식창고는 인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논하였는데, 이는 작품 내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겠다. 그에 비해 본장에서의 이러한 해석은 곡식창고를 작품 외적인 것과 결부시킨 것이다.

39) 김용섭, 증보판『조선후기 농업사 연구』 I, 지식산업사, 1995, 3면.

40) 한국역사연구회 편, 증보판『한국사강의』, 한울아카데미, 1998, 163면.

41) “王者以民爲天 而民人以食爲天”『史記詳林』 권97, 「酈生陸賈列傳」 37, 4면(『史記列傳』下, 한문대계 7, 동경 : 부산방, 1985).

42) “絕萬民之人”(규장각본 1뒤)

중세 체제가 잘 정비되고 위정자가 본분을 다했다면, 쥐로 상징되는 일군의 무리는 떨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의 국가 질서가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중봉기가 일어난 것이다. 「서옥기」에서는 왜 쥐가 무리를 지어 곡식창고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작품 전반에 걸쳐 상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당대 중세 질서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서옥기」에는 제기되어 있는데, 먼저 국가에 의해 백성에게 강요된 의무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況秦民避苛政之酷, 逃長城之役, 扶携老幼, 遠入武陵, 青山隔世, 流水阻人, 而惟桃花不念培植之恩, 欲漏隱倫之蹤, 故泛清溪之波, 引漁人之舟, 以致歸告太守, 使人物色, 所幸者, 不卜仙源, 終未得尋之也.不然, 安得免籍其戶而徵其賦乎?(규장각본 10뒤~11앞)

진나라 백성이 가혹한 정치를 피하고 만리장성의 부역을 벗어나고자, 늙은이, 어린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멀리 무릉에 들어왔는데, 청산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떨어져 있고流水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꽃이 심어준 은혜를 생각지 않고 숨어사는 자취를 누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맑은 시냇물에 띄워져 내려가 어부의 배를 이끌어들여 어부로 하여금 태수에게 돌아가 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수가 사람을 시켜 무릉을 찾게 했으나 다행히도 仙源을 분별하지 못해 끝내 무릉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어찌 戸口에 대한 稅를 내고 부역에 징집되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쥐가 창신에게 桃花를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다. 쥐는 『桃花源記』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진나라 백성이 무릉에 들어간 것을 들어 당대의 수탈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쥐는 진의 백성이 무릉에 간 것은 勉政(가혹한 정사)를 피하고, 長城之役(장성을 쌓기 위해 동원된 부역)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또 마지막 말에서도 하마터면 무릉에 들어간 백성들이桃花로 말미암아 다시 “籍其戶”하고 “徵其賦” 할 뻔했다고 하고 있다. 쥐의 이 말에서 당대의 백성들이 내는 세금과 부역의 고통이 대단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이 창작된 그 시대에도 역시 이상의 내용과 비슷한 실화가 실록에까

지 실려 있어 당대의 賦稅 수탈이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³⁾ 吉城·明川·鏡城·洪原·定平 등지의 사람들이 가혹한 부세를 피해 北青과 甲山으로 도망간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로 인해 임금이 領敦寧 이상과 議政府·六曹에 의논하도록 명하니 신하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였다.⁴⁴⁾ 결국 임금은 이들을 그 곳에 살게 하고 만다.⁴⁵⁾ 이렇게 부세를 피한 도망한 일이 태평성대로 불리던 성종 때 일어난 것인 만큼 다른 임금 때에는 더욱 심했으리라 추측된다. 그래서 양심 있는 선비들은 이러한 부세에 대해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⁴⁶⁾

한편, 조선 후기에 들어 田政, 軍政, 還穀의 이른바 三政이 문란해졌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는 이러한 조세의 업무를 군현의 수령과 향촌지배계층에 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

43) 성종 16년(1485) 2월 10일조

44) 성종 16년(1485) 2월 10일조, “命召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 傳曰: ‘今見諸議, 或云逃民首謀者, 痛繩以法, 或云不可加罪, 其議不一, 今不刷還, 威令不行, 若欲刷還, 恐致騷擾, 其更議之’ 鄭昌孫 韓明澮 沈澮 尹鑾 徐居正 金宗直 朴崇質議 新地之民, 窮處一隅, 自外王化, 其罪深重, 並皆刷還可也. 然數百餘人, 一朝刷還, 恐或騷動, 因而存撫爲便, 但其中爲首者, 不可不論以重法以懲後來. 尹弼商 韓致禮議 此非濟從他國之例, 又無首謀統領之人, 置之重典, 實爲未安. 又安得人人而罪之? 今若刷還, 則必皆騷動, 又轉而之他, 不若姑從權典, 仍安捷之 ……’” 『조선왕조실록』 10, 성종실록(3), 국사편찬위원회, 1956, 688면.

45) 성종 16년(1485) 2월 10일조, “予不忍以不測之重典, 加于無識之小民. 特假寬恩, 仍存撫之, 卿宜體予意, 洞曉其民, 使之不驚擾、不失業, 編于戶籍軍伍, 令本邑官吏監護之” 『조선왕조실록』 10, 성종실록(3), 국사편찬위원회, 1956, 689면.

46) 예를 들면, 영조 때 우윤 이정제는 군역의 폐단을 막아 형평에 맞게 하자는 상소를 올리며, 은 八道의 蒼生이 임금의 赤子 아닌 자가 있는데도 身役의 輕重은 현저하게 같지 않음을 말한 바 있다. 영조 3년(1727) 11월 2일조.

“右尹李廷濟上疏, 略曰: ‘今之論良役之弊者, 輒言救弊之策, 僅在於減去一疋, 節省用道, 此言似然, 而實有不然者. 盖今軍布所擣, 人約七十餘疋, 若減半, 則三十五萬餘疋, 國家經費, 既不減半, 則以減半之布, 決難需用, 其勢將至於加賦矣. 二疋之擣雖重, 流來已久, 加賦之弊新生, 則舉國俱駭, 將至於土崩瓦解, 惟有均役一事, 可以少救痼弊. 噫! 環海蒼生, 固非門閥之下赤子, 而出役輕重, 顯有不同, 其曰: 京司之直定也·各營之私擁也·各驛之保人也·鄉校書院屯田牧場, 各邑各廳, 或稱募入, 或稱保率, 或稱匠人也者, 雖不及軍保之多, 而幾不下四五分之一二. 役輕者占計鑽入, 終身安居, 役重者率被椎剝, 破家流死, 聖世制民之法, 豈用若是哉? ……’” (『조선왕조실록』 41, 숙종실록(4)·경종실록(수)·경종수정실록(수)·영조실록(1), 국사편찬위원회, 1970, 680면)

제한적 수탈을 농민들은 감수해야만 하였다.⁴⁷⁾ 따라서 이러한 와중에 탐관오리 등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서옥기』에서는 바로 당대의 모순 중 부세 수탈의 문제를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고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금 수령자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세금은 주로 지방의 관리와 아전이 겉었는데, 『서옥기』에서는 이들 가운데 수탈을 일삼는 자들을 貪官汚吏라 하여 비판하고 있다.⁴⁸⁾ 우화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술자가 쥐의 입을 빌어 문신과 호령을 비판하면서 탐관오리의 문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정면으로 제기한 것은 탐관오리가 국가에 주는 폐해가 심각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부세 징수와 탐관오리로 인한 백성의 고통이 『서옥기』에는 일회적으로 드러나 있는 데 비해, 신분질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 전반에 걸쳐 우의적으로 나타나 있다. 기실 『서옥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당대에 고착화되어 있던 신분질서라 할 수 있다.

『서옥기』에서 쥐를 비롯해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에서 그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쥐나 賤類의 동물이 동물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밝힌 것은 작품이 창작되던 당대에 그러한 의식이 굳어져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쥐가 호랑이나 용 등 동물 사회에서 상위에 드는 동물들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도 그러한 비판의식이 드러난다. 동물이 자신의 위상을 밝히는 대목이 사회전체 신분구조의 일단을 제시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더 나아가 기득권층에 의해 조종되는 불평등한 신분질서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 시대의 경우 수취제도를 예로 들면, 18세기에는 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結稅조차 三南에서는 佃戶가 부담하는 관행이 보편화될 정도로 하층민인 농민 등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⁴⁹⁾

이러한 신분 질서에 대한 비판은, 쥐가 죽기 직전에 상제가 天, 地, 野, 山, 松, 柏, 風, 雲, 霧, 露, 星辰, 日月 등에게 명해 자신이 곡식을 마음대로 먹게 했다는 대목에서 뚜렷이 부각되어 있다. 쥐는 이를 자연이 그 자리

47) 이상 三政 관련 언급은 한국역사연구회 편, 앞의 책, 207면에서 참조하였다.

48) 2장 1절 참조.

49) 김태영, 「조선시대 농민의 사회적 지위」, 『한국사 시민강좌』 제6집, 일조각, 1990, 62면.

에 있으면서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고 자신 역시 그려함을 논파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당대의 신분 질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서옥기」에서 쥐가 마지막 부분에서 창신에게 한 이 말은 이러한 당대의 신분 의식과 그러한 의식을 기반으로 당대에 자리잡은 신분 질서를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그것은 작품 全般에 걸쳐 나타났던 신분 질서에 대한 비판을 수렴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서옥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에 맹렬하게 일어났던 민란의 원인과 궤를 같이한다. 대표적인 민란으로는 1811~1812년에 일어난 평안도 민란(일명 洪景來의 亂), 1862년의 농민항쟁,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⁵⁰⁾을 들 수 있다. 이들 민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대부분 국가와 지배층이 자행하는 조세수탈과 봉건적 탐학 때문이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 집강소를 세우고 요구한 弊政改革을 들 수 있다. 전체 12항목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사회신분제도의 폐지, 삼정의 개혁이 그 중심 내용이었다.⁵¹⁾ 민란의 주체인 농민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던 탐관오리의 수탈, 가혹한 賦稅, 바뀔 수 없는 신분 질서 등 당대 사회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봉기했던 것이다. 「서옥기」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을 담아낸 작품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쥐는 상제의 권위를 離손하게 된다. 쥐의 상징과 연관시켜 볼 때, 상제는 당대의 최고 지위자 즉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창신은 상제보다는 아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 등 실무를 맡은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⁵²⁾ 「서옥기」에서 쥐와 창신과 상제의 관계는 신분적으

50) 평안도 민란과 1862년 농민항쟁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편, 앞의 책, 210~220면에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갑오농민전쟁의 경우 한우근에 의해 세밀하게 고찰된 바 있다(한우근, 『동학과 농민봉기』, 일조각, 1983).

51) 신용하,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농민집강소의 폐정개혁」, 『한국사 시민강좌』 제6집, 일조각, 1990, 87~89면 참조.

52) 이러한 해석은 기왕의 주도적인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서옥기」에 대해 유일하게 작품론을 쓴 정학성은 창신이 국가적 통치력의 상징적 권화라고 한 바 있으며 신영주, 정규훈이 그의 의견을 따랐다(정학성, 앞의 논문, 234~237면; 신영주, 앞의 논문, 45면; 정규훈, 앞의 논문, 102면).

본고의 견해는, 창신을 최고 지위의 인물로 보지 않았다는 데서 오히려 창신을 부능한 지배자(수령 등)의 전형으로 본 견해에 가깝다(유경수, 「서류소설고」, 전북대

로 차이가 지워진 존재들이고, 쥐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신분적 차이를 타파하고자 항거하였던 것이다.

4. 작가의식: 표면적 목소리와 이면적 목소리

우의적인 표현을 기반으로 창작된 우화소설은 작가⁵³⁾의 목소리가 다른 소설 유형에 비해서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화소설의 주제가 약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화소설은 우의적인 표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설 유형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질 수 없었던 주제, 구체적으로는 사회 비판 등을 더욱 강력하게-형식상으로는 잠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기왕의 우화소설 연구에서도 거듭 확인된 바이다.⁵⁴⁾

「서옥기」에서도 역시 작가의 사회적 의식이 우의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작품에 드러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서옥기」는 중세의 봉건 질서 내에서 파생될 수 있었던 많은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다. 국가의 불합리한 수취체제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탐관오리의 수탈, 그리고 당대의 질서를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던 신분질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분질서에 대한 작가의 신랄한 비판은 작품 전편에 걸쳐 있는데, 이는 왜곡된 신분질서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매우 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 쥐로 상징되는 일군의 무리를 작가는 등장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쥐로 상징되는 변혁세력을 작품에서는 부정적으로 그려 놓았다는 점이다. 쥐는 간사하고 교활하며, 무고한 동물을 고인하

석사논문, 1986, 25면).

53) 주지하다시피 작가는 서술자와 구분되는 존재이다. 작가가 작품을 창작한 이라면, 서술자는 작품 내에서 작품을 이끌어가는 이이다. 본고에서 앞장에서는 작품의 내적 의미를 중시하여 주로 서술자라 명명했으나, 본 장에서는 작품의 내적 의미뿐 아니라 작품의 창작의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술자보다는 작가라 호칭하고 작품에 드러난 그러한 의식을 작가의식이라 명명하기로 한다.

54) 정출현, 앞의 논문; 민찬, 앞의 논문.

며 거짓에 거짓을 더하여 갈수록 죄가 강화되는⁵⁵⁾ 인물로서 마지막에는 처형당하고 만다. 작가가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 쥐로 상징되는 사회변혁을 등장시켜 사회를 비판하는 데 있다면, 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설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⁵⁶⁾

「서옥기」 작가가 우의라는 틀 하에서 쥐를 등장시킨 것은 자신의 생각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해서이다. 따라서 작가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과 이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문면에 나타나 있는 내용만을 기준으로 작가의식을 도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면적인 또는 암시적인 작가의 목소리를 살펴야 할 필요가 아래서 있는 것이다.

太史曰：“火不撲則延，獄不斷則蔓。向，使倉神案其罪而卽磔之，則其禍必不熾也。噫！戾氣所種，豈獨穴倉之一也哉。吁！可畏也。”(규장각본 34위)

태사는 말한다. “불은 처음에 잡지 못하면 뻗어나가고 옥사는 처음에 결단하지 못하면 뻗어나가게 된다. 접때, 창신이 쥐의 죄를 알았을 때 그 즉시 쥐를 죽였다면, 그 화가 반드시 뻗쳐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 사나운 기운이 생겨 나는 곳이 어찌 구멍뚫린 창고 하나뿐이겠는가? 아! 두렵도다”

이를 문면대로 본다면 쥐와 같은 奸賊이 옥사를 일으켜 그禍가 대단하게 뻗쳐나갔다는 내용이다. 이는 작품 全篇에서 서술자가 쥐에 대해 보인 부정적인 어조와 일치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논평에서 ‘禍’가 뜻하는 것은 문면 그대로 옥사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⁵⁷⁾ 실제로는 사회적 맥락

55) 필자가 창작방식 가운데 대립 구도를 살피며 후반부로 갈수록 쥐의 죄가 강화됨을 논한 바 있다. 참고, 앞의 논문 참조.

56) 쥐의 처형에 대해 김충실은 계급사회에서 미천한 존재는 아무리 항변해도 결국 구제받지 못하고 그 죄만 가중되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쥐와 군물이 별인 공방을 중시하여 이를 사회적 의미로 보고, 또 작품을 내적으로 일관되게 파악하여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견해에는 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천하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작품의 구조상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쥐는 곡식창고에 들어가 곡식을 훔쳐먹은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김충실, 앞의 논문, 78면.

57) 이현홍은 「서옥기」의 작가를 옥사와 관련된 계통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하였다. 곧 「서옥기」가 ‘송사사건의 실무적 처리능력은 물론 윤서나 판례 등에 상당한 식견을

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는 뒷부분의 ‘戾氣所種, 豈獨穴倉之一也哉’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서옥기」를 단순히 옥사와 관련된 흥미 위주의 작품으로 창작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작품에서 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조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상징하고자 한 것은 ‘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쥐를 매개로 한 것’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쥐를 매개로 한 것’이란 다름 아닌 민란 또는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회상황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마지막에 쥐가 처형당한다는 설정 역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 쥐의 죽음은 작품에서 그를 奸賊으로 묘사해 놓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즉 작품 전편의 분위기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상황과 연관시킨다면 쥐의 행위가 담고 있는 상징, 즉 민란이 아직은 사회를 전복시킬 만한 힘을 지니지 못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대의 비판적 지식인이었던 작가가 아직 사회를 혁신시킬 만한 힘이 사회적으로 무르익지 못한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해석이 된다.

요컨대, 작가는 표면적으로는 쥐를 교활하고 간사한 동물로 그리고 있지만, 실상은 쥐를 통해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서옥기」의 작가의식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작품의 문면을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그 우의적 의미를 검토하였

가진 문필가나 식자 계층의 손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작된 송사소설'(44면)이라 했는가 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후자의 두 작품(와서옥안, 서옥기·인용자 주)은 行刑 업무에 밝은 실무자가 자신들의 업무에 얹힌 시련의 한 단면을 회화적으로 그려본 것’(398면)이라 하였다. 이현홍, 앞의 책.

한편 김충실은 작품을 옥사와 관련시켜 해석하였는데, 서옥기가 드러내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판관의 무능함과 고문의 위협을 통한 자백의 강요라고 하였고, 본문에 등장하는 창신을 판관으로 해석하였다. 김충실, 앞의 논문, 77면.

다. 그 결과, 「서옥기」에는 조선시대의 사회 상황이 우의적으로 펼쳐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작가가 특히 문제삼은 것은 중세의 강고한 신분 질서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작품에 드러내고 있는 신분 질서의 문제를 통해 그것이 결국 민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쥐로 상징되는 민란 세력은 무르익지 않은 사회 상황 속에서 좌절되고 만다. 이는 비판적 지식인이었던 작가의 사회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작가는 쥐를 표면적으로는 시종 부정적으로 그려 놓았지만, 이면적으로는 쥐를 통해 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하면, 「서옥기」는 민중들의 개아의식이 일어나고, 민중들이 중세 봉건 체제의 부조리를 인식하며 체제에 저항하던 시대, 구체적으로는 19세기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작가는 상당한 학식이 있는 지식인으로서 그러한 사회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일정하게 비판적 의식을 지닌 인물이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회의 움직임의 한계를 인식했던 인물로 파악된다.

「서옥기」에 대한 이상의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는 시각면에서 확연히 다르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향촌사회와 연관을 지어 해석했다면, 본 논문에서는 신분질서의 문제와 그로부터 야기된 저항세력의 문제가 작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다소 과격적이라 할 이러한 주제의식을 다른 우화 소설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같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서옥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영인 :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 문화사, 1980).
- 『서옥설』, 규장각 소장(활자화 : 임명덕 주편, 『한국한문소설전집』 6, 중화민국 : 중국문화학원, 1980).
- 『서옥설』, 북한본(활자화 · 번역 : 리철화 역, 『림제 · 권필 작품집』, 문예출판사, 1990).
- 『조선왕조실록』 10, 성종실록(3), 국사편찬위원회, 1956.
- 『조선왕조실록』 41, 숙종실록(4) · 경종실록(全) · 경종수정실록(全) · 영조실록(1), 국사편찬위원회, 1970.
- 김광순, 「鼠의 의인류소설의 상호관계」, 『한국의인소설연구』, 새문사, 1987.
- 김재환, 「한국동물우화소설의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88.
- 김충실, 「송사형 고전소설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1.
- 김태영, 「조선시대 농민의 사회적 지위」, 『한국사 시민강좌』 제6집, 일조각, 1990.
-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중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 민 찬, 『조선후기 우화소설연구』, 태학사, 1995.
- 신영주, 「쥐를 의인화한 우화소설 연구」, 상명여대 석사논문, 1986.
- 신영주, 「조선후기 송사소설 연구」, 상명대 박사논문, 1996.
- 신용하,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농민집강소의 폐정개혁」, 『한국사 시민강좌』 제6집, 일조각, 1990.
- 유경수, 「서류소설고」, 전북대 석사논문, 1986.
- 윤승준, 「조선시대 동물우언의 전통과 우화소설」, 단국대 박사논문, 1997.
-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 장시팡, 「서옥기의 창작방식 연구」, 『동양고전연구』 12, 동양고전학회, 1999.
- 정규훈, 「조선후기 우화소설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88.
- 정출현,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논문, 1992.
- 정학성, 「우화소설 서옥기의 소설사적 가치」,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출판사, 1981.
- 주영효, 「鼠類 寓話小說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5.
- 한우근, 「동학과 농민봉기」, 일조각, 1983.
- 왕용쿠안, 김장호 옮김, 『酷刑』, 마니아북스, 1999.
- 프란체스코 산토야니, 이현경 옮김, 『쥐와 인간』, 시유시, 1999.
- D.C. Muecke, 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출판부, 1986.